

금일도 500여 노인 초청, 복음으로 하나 되어

신안군 금일읍 이웃사랑 초청 잔치에 찬송과 기도로 큰 역사 나타나



한영훈구원선교회(김복남 목사) 주최로 열린 이웃사랑 초청 잔치는 금일기독교연합회(회장 정중은 목사·동백교회), 분당중성교회(담임 윤여풍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사진), 한길교회 주관한 가운데 지난 7월24일(화)오전11시 전남 신안군 금일읍 금일중학교 체육관에서 500여명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가운데 개최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절 말씀을 주제로 열린 이웃사랑 큰 잔치에 한영훈구원선교회 김복남 목사의 인도로 정중은 목사(금일기독교연합회장, 동백교회)가 기도를 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무용팀의 부채춤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후, 감사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



회는 "큰 축복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두 손을 모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감사의 선창에 따라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

주요 영접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천국에 항상 같이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 박준만 장로(전원중앙교회)의 감동

적인 특송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분당중성교회가 준비한 복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 위로했다.

이날 전남 신안군 금일읍 금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금일읍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금일읍 15개 교회가 연합으로 협력하고, 분당중성교회(윤여풍 목사)에서 육개장과 과일을 대접했으며, 전원중앙교회(강사 정기환 목사)에서는 풍성한 선물과 샴프 500개, 효자손 등을 증정하고, 한길교회에서 안경 300개, 칫솔 300개를 증정했다. 하지만 부족했던 안경 200개, 칫솔 200개 이상은 주님을 영접한 노인들에게 기뻐한 주소지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금일읍 기독교연합회(회장 정중은 목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2013년도에도 이웃사랑 초청 잔치를 부탁했다.
아울러 정기환 목사 일행은 금일읍을 떠나 여수 애향원교회를 방문하고 전주영광교회(이관능 목사)를 들러 예배와 기도회를 가진 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상경했다.

중앙노회 주최 청소년연합수련회

젊은이들이여!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중앙노회는 2012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이 땅의 청소년들이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 목회자 자녀 및 비 자녀 회복 복

음집회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 위치한 수동기도원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다.
집회의 특징이라면 그동안 7차에 걸쳐 구리 왕성한 교회를 중심으로 박종천 목사와 박

영광 전도사 및 이 사역에 헌신된 여러 사역자들을 스템으로 하여 연합수련회를 진행한 결과 수련회 참석한 학생들의 간증과 청소년을 참석시킨 목회자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삶과 가치관이 바뀌는 기회였다고 한 결 같이 입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질 때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죄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를 찌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하심이 있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웨신총회 중앙노회는 이 사역 팀을 주 강사로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

는 마음으로 개 교회와 함께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아무리 큰 강이라도 시작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 되듯이 수련회를 통해 컴퓨터와 성 이람 등 빠른 속도로 타락해져 가는 청소년 문화가 다시 회복되는 생명의 물줄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본다.

한편 제1회 중앙노회 주재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젊은이들이여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주제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 (고전1:18), 거룩한 기쁨 부으심 (시편 89:19-37),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 (눅17:20-21)"등을 강의를 한다.

이번 중앙노회 주재 청소년연합수련회는 2012년 8월1일(수)~4일(토)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기도원(원장 이태희 목사)소방성전에서 개최되며 후원은 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지저스타임즈, 전원중앙교회, 행복을 주는교회, 사랑의 빛교회, 향기로운교회 등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나?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지식과 지혜라고 하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또한 지식과 지혜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의를 부르짖는다 해도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에게 이용물이 되곤 하였다. 도둑을 막으려고 세워 놓은 기구가 오히려 그 도둑의 도구가 되고, 도둑을 잡으려던 CCTV 카메라는 오히려 도둑을 민첩하게 만들고 있다.

착한 사람일지라도 성인의 도를 알지 못하면 도를 행할 수 없는 것이요, 인의를 베풀어 도둑을 없애려 한다고 하면 도리어 도둑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진실로 도둑을 없애고 싶으면 지혜를 버리고 인의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육을 버리고 구슬을 깨뜨리면 작은 도둑이 없어진다 했으니, 가정에 남이 갖고 싶어하는 보물이 없으면 탐내는 이가 없다는 것 아닌가? 부적을 태우고 인장을 부수면 백성이 순복해 진다했다. 옛날 지극히 어진 다스림을 이룬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노끈을 맺어 기억하면서 서로의 악속을 잊지 않았으며 음식은 어떤 것이랴도 맛있게 먹고, 의복도 어떤 종류라도 귀히 여겼으며, 풍족을 즐기며 거처는 편안하면 만족하였다. 그런데 현인이 나타나고부터는 백성이 지혜를 즐기고 남의 이목이 따르지 못함을 자랑스럽게 여겨 서로 거짓을 꾸며 댄으로 오히려 세상은 어지러워 졌다.

(지혜를 찾는 까닭에 자기가 모르는 바깥 것만 찾고 있다.)
그래서 새는 나무 위에서 어지럽고 짐승은 숲에서 어지러워 졌으며 고기는 물에서 어지러워 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로써 어지러워 졌다.

사람들의 지혜는 자연을 그슬리고 각종 동식물을 어지럽게 하였다. 지혜를 찾는 까닭에 자기가 모르는 바깥 것만 찾았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잊고 말았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보면 받는 자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았지만 나중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구속되고, 그럼에도 지혜로운 국민은 그들을 또 정치인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돈을 또 받아 먹는다. 주는 자는 자기 것을 주면서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를 밝히도 자기 인생을 어렵게 하고 만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정치인인가보다 고 생각해 본다. 뿐만 아니라 판사도 이념에 얽매이거나 유혹에 빠지니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여저지 못하고 허우적 거린다. 어찌 이를 정치만을, 세상만을 탓하랴?

오늘 날 우리 교계에는 놀라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본다. 한창 때에는 참으로 신실했던 한 노 목사님은 자신에게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아들을 후계자로 한 것이었다 고 솔회했다. 여하간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오히려 교인들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목회자가 어디 하나 들인가? 이 시간에도 베드로를 사도는 전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나? 세상적 지혜나 지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순수함과 진실함과 욕심도 없이 오직 처음 인간의 모습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행복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교회(이주홍 목사)
7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년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음교회(전종희 목사)
24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정중앙교회(최복대 목사)
7-9 숭산반성교회(김형진 목사)
1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정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종우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복월축복대성회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은누리교회(조인환 목사)

2011년 4월
4-7 갈멜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성교회(이광규 목사)
1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성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경진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희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근교회(이종환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22 생령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원교회(이영진 목사)
1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성령특별세미나
18-21 스물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5-27 원주분열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운기도원(김현배 원장)
15-18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9월
4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은누리복음화합의회(임기호 총재)
12-15 동광 할렐루야 교회(전 중 목사)
18 성안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2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전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전 회개원기독교연합성회(박진원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16-18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19 은천교회(최세동 목사)
23-26 은천교회(최세동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연인애 원장)
3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평영례교회(김성종 목사)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허영해 원장)
7-9 반성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령교회(진영하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21-24 주안성령교회(진영하 목사)
2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정수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준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중앙교회(연인애 원장)
2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성중앙교회(이영준 목사)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 원장)
9-11 온사랑교회(최대식 목사)
13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16-18 성산수양관(윤호준 목사)
19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22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3-26 광운기도원(김현배 원장)
29 예제교회(유준모 목사)
30-1/2 현동교회(송우종 목사)

2012년 2월
6-9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 목사)
13-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신갈성로교회(이광수 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준 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 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 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성회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 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 원장)
9-10 정기노회
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18 동탄제자교회(이석원 목사)
23-25 주사리교회(김주현 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2년 5월
31-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7-9 우리교회종교개혁(이명천 목사)
13-16 성신교회(송양도 목사)
21-24 평동교회(김동기 목사)

2012년 6월
3-6 주천양교회(윤병국 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해 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재영성회(송요섭 원장)
8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0 신학성령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2년 8월
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11-16 광운기도원(김현배 원장)
20-23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2012년 9월
2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3-6 은누리연합수련회(임기호 총재)
10-12 새안교회(김병식 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성소기도원(이석원 목사)
3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2년 10월
7-9 퇴계원장로교회(김동천 목사)
정기노회
15-16 전보산기도원(송대구 목사)
22-25 은누리교회(이영준 목사)
28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9-31 전진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 한신현 목사)

2012년 11월
5-9 선교지방문
11-14 동탄제자교회(이석원 목사)
19-21 은누리교회(이영준 목사)
2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업 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3-5 임마누엘교회(정대철 목사)
10-12 예원교회(한규식 목사)
17-21 필리핀선교대회
2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 (사)법인설립

이사장 박재열 목사, 5천교회 지원 포부 밝혀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박재열 목사)가 사단법인을 취득하고 12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법인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동선교회에서 2002년 작은교회 15개 교회 지원을 시작으로 출발한 동 본부는 보다 체계적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일하기 위해 올 5월 26일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사장 박재열 목사가 주책을 헌납하여

재산출연금 3억원을 감당했고, 5월 30일 관계당국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제출후 6월 8일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게 되었다.

(사)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는 경제력 조직력이 약한 각 지역의 작은 교회를 물심양면 후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흥의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작은 교회들이 참신하고 건전한 종교 활동을 영위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동 본부는 물질지원을 넘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목회사관후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50개 교회를 선정해 후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교회는 1,052개 교회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정기 부흥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앞으로 목회사관후련의 지원도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후련을 해마다 200교회씩 실시해 2000교



회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도시교회 목회사관 후련 3000개 교회, 농촌 특별후련 2000개 교회로 총 5000개 교회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이 외에도 동 본부에서는 100명 이하 교회가 1년에 세례를 20명 이상 주면, 500만원 혹은 1천만원 상금을 주어 작은 교회들에게 비전을 주고, 큰 교회들에게는 수평이동보다 영혼구원에 비중을 두게 하고자 한다.

한편 감사예배는 상임이사 이현식 목사의 사회와 박재열 이사장의 환영사, 후원이

사장 이근민 목사(오삼능력교회)의 기도, 이광선 목사(신광교회 원로)의 "지극히 작은 겨자씨" 제하의 설교, 김진호 감독(도봉감리교회 원로)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2부 후원이사 위촉식 및 축하 행사를 가졌다. 최종하 대외협력국장의 사회와 홍인표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구본홍 사장(CTS기독교TV)과 이재천 사장(CBS기독교방송), 강지원 변호사(사단법인 나눔플러스 총재)의 축사, 김요셉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와 김선규 목사(한장총 중경대표회장)의 격려사 등이 있었다.

한국경목총회 제35회 정기총회 총회장 허식목사 연임

하나님께 영광을, 13만 경찰복음화에 힘쓰는 총회가 되자!



한국경목총회(총회장 허 식)는 지난 5일 서울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장 허식 목사가 유임됐다.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250개 경찰서, 기동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등 13만 경찰과

60만 경찰가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1966년 발족되어진 한국경목총회가 2012년 7월 5일 제35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20여명의 총대가 모인 가운데 총무 홍향표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부서기 박양우 목사가 기도를, 회계 정운선 목사의 성경봉독과 복음가수 우슬조

목사의 찬양이 있었다. 총회장 허 식 목사는 요한복음 8:32절을 인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는 설교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 총회장은 "경찰선교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경찰관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모범된 경찰 선교사역에 힘써 일할 때, 13만 경찰관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아버지처럼 대하고, 참 목회자처럼 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 더욱 발전하는 한국경목총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는 한국경목총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허 식 총회장은 이날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선교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경찰 선교 정책을 교회와 경찰, 경찰가족, 일반교우들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시도 경찰서 기동대 경목 및 낙도 오지 지구대 경찰가족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본 총회는 믿지 않는 경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정보와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 나라와 대선과 대통령을 위해 조규선 목사(부회장), 김기용 경찰청장을 위해 김창룡 목사(선교이사), 전국경목원들과 사업을 위해 이창식 목사(선교이사)가 각각 기도했다.

이날 이효은 목사는 허 식 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허 총회장은 박양우 목사, 육운진 목사, 박용준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전 했다. 이어 총무 홍향표 목사의 광고 후 고문 박한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한국경목총회 제35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각부 보고가 있는 후 임원선거에서 현 총회장 허 식 목사가 만장일치 연임되었다.

고문 : 조용목 목사, 박한규 목사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부회장 : 백승익 목사, 엄기호 목사, 이정준 목사, 김창룡 목사, 김준순 목사, 이창식 목사, 유철규 목사, 김길수 목사, 남규열 목사, 황연석 목사, 조규성 목사, 총 무 : 홍향표 목사, 부총무 조운기 목사, 서기 : 양미상 목사, 부서기 : 박양우 목사, 회목서기 : 오성규 목사, 부회목서기 : 김옥환 목사, 회계 : 정운선 목사, 부회계 : 주광선 목사, 감사 : 이효은 목사, 이상재 목사 등이다.

한편 한국경목총회 제35회 정기총회는 본회가 주최하고,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www.jtntv.kr)와 경찰기독신문사가 협찬했다.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 세미나’

사역에 지친 사모님들 위한 시원한 영혼 청량제



전국목회자 사모님들만을 위한 은혜롭고 시원한 축제인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사진)와 목회자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주최하고 CTS 기독교TV, CBS, febc

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가 공동 후원하는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2012년 8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서울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된다. “목회자! 사모여 행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8회를 맞는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의 슬로건(Slogan)은 “마음껏 웃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 하는 사모세미나”이다.

이번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의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 중앙교회), 곡선희 목사(소망교회), 강

문호 목사(갈보리교회),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송태권 목사(불꽃교회), 박영길 목사(명문교회), 서용봉 목사(상록중앙교회), 윤보환 목사(영광교회), 박태남 목사(벤엘교회), 백효선 목사(청주급식수양관), 이은희 목사(대전중앙교회 최병남 목사),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최봉구 전문위원(한국레크리에이션협의회),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등으로 한국의 저명한 강사들과 선교사, 목회자사모,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최고의 목회자사모세미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 일본 순복음 마쓰도교회 김정희 사모, 전북 익산에 이리감리교회 오선환 사모, 수원 구운동교회 김성자 사

모, 정부 연약교회 박화자 사모 등은 해마다 감동적인 목회자 사모세미나가 기대된다.

아울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는 이번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모든 사모님들은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자유의 시간이 될 것이며 행복한 사모님으로 변화되어 돌아 갈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속식일제 무료이며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주침을 통하여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선착순 접수로 인원제한은 1000명이다.

문의 : 목회자사모신문 02)2207-8504~5 www.samonews.kr



포항시립합창단 교도소 위문공연 열어

지난 17일 포항교도소에서는 특별한 문화 공연이 있었다. 바로 포항시립합창단의 단원들이 와서 공연을 하였기 때문이다.

포항교도소 정재홍 소장은 이날 소감을 통해 포항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공연에 참석한 수용자 420명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용생활을 잘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포항교도소는 개청 이후에는 약 1,000명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설로 정재홍 소장이하 사회복지과 과장은 늘 수용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자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포항시립합창단원이 포항교도소에서 공연을 하게 된 동기는 교정위원 이기학 목사(법무부 위촉위원, 경북북부 제2교도소 종교위원)의



주선으로 되어졌다.

이 목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물을 던지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여 주고, 풀어 주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목사는 극동방송에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교정전문프로그램인 '아름다운 고백'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에서 이기학 기자(포항지사장)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 피종진 목사 이사: 장환목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남목 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석가도 철저하게 무신론을 주장했다

2. 불교의 변질

석가모니가 출가하여 설산수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만든 가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신들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이주민 아리안 족들이 선주민 드라비다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안 족은 인도 땅으로 침입하면서 인도북부를 장악하고 브라만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브라만교 안에 계급차 별적인 카스트제도를 만들어 드라비다족을 하층계급에 묶어 두었다. 최하층계급인 슈드라들이 노예생활을 잘하면 영겁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태어날 때는 바이사로 태어나고, 바이사가 브라만을 잘 섬기면 영겁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태어날 때는 한 계급 높은 크사트리아로 태어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처럼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영원히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브라만교의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카스트제도와 종교적인 교리로 드라비다족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다. 석가 자신은 아리안족이면서 자신의 종족이 드라비다족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누구나 이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 영겁의 세월동안 윤회를 거듭할 필요도 없이 바로 브라만(승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설교했던 것이다..

그러나 석가는 자신이 깨달았던 내용은 당시 사회구조와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엄청난 내용이었고, 만약 자신이 깨달았던 내용을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회적인 혁명과 폭동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혁명적인 내용이 었다.

그래서 석가는 자신의 깨달은 내용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알 듯 말듯하고 뭔가 심오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드라비다족이라 할지라도 브라만(승려)이 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존경받던 성철스님이 1981년 조계종 중정

으로 취임할 때 했던 말이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원래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중국에서 쓰여진 ‘금강경요가해(金剛經五家解)’ (금강경을 다섯 고승이 해석한 책)에 나오는 글이다.

“산시산 수시수 불재하처 (山是山 水是水 佛在何處),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 있다는 말인가?”의 시구의 앞부분을 성철이 인용한 것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석가도 루터보다 2000년 먼저 만인제사장설 주장한 종교개혁가다”

보고 나무는 나무로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교리중에 8경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견(定見) - 바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드라비다족은 석가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그저 자기들에게 잘 대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주니까 대자대비한 부처로 알고 존경했던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석가는 루터보다 무려 2000년 먼저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던 종교개혁가였다.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깨달은 석가의 탁월한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은 가히 존경할 만하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이처럼 석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오늘날 불교는 석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신적종교로 변질되어버렸다. 석가가 설립한 당시의 불교를 불교에서는 '원시불교'라고 한다. 이 원시불교에서 소승불교(小乘佛敎)가 나왔고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大乘佛敎)가 나왔다.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태국, 버마, 인도차이나 등에 두루 퍼져 있고,

대승불교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두루 퍼져 있다.

그러면 소승불교는 무엇이고 대승불교는 무엇인가?

소승불교는 대승불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불교로 출가주의(出家主義) 불교이다. 출가는 가정생활, 성 생활, 경제 행위 등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 애정과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열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원시불교인 소승불교는 '출가한 사람만이 구원



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석가가 입멸한 후 500백년 정도 지난 후, 소승불교의 출가주의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출가하지 않고 구원 얻을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불교를 전개해 경전을 만들고 대승불교를 일으켰다. 그들은 재가(在家) 신자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쳤다. 문제는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신적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대일여래, 아미타불, 미륵불...)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인 정토사상이 등장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면 아미타부처가 있다고 한다. 또 말세가 되면 미륵불이라는 부처가 나타나서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독교의 구세주사상까지 등장한다. 12세기에 이르러서는 남무아미타불(‘아미타부처에게 귀의합니다’라는 뜻을 외우면 누구든지 정토에 태어날뿐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교의 모습은 후대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나무아미타불이라

는 염불은 사도행전 2:21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는 말로는 신이 없다고 하면서 석가를 신으로 숭배하며, 동시에 온갖 신을 섬기는 이중성을 띄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가 스스로가 자신은 결코 신이나 초인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았으며 스스로도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석가가 설사병으로 죽어갈 때 박카리라는 제자가 석가에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때 석가는 ‘박카리아, 이 썩은 몸을 보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거부했다. 또, 언젠가 석가모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침묵을 지켰다. 그는 다시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신입니까?” 석가모니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는 다시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천사입니까?” 석가모니는 여전히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럼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체념 어린 질문을 받았을 때 석가는 조용히 “나는 깨달은 자에 불과하다” 나는 말이 아니라 단지 말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경전인 법화경을 보면 석가는 영원전부터 부처였다고 주장. ‘사람들은 석가가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석가는 영원 전에 이미 부처가 되었다. 그럼 왜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이것 역시 요한복음 1:1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승불교안에 기독교사상과 교리가 들어가면서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다. 실제로 인도의 유명한 종교학자 아만드 사박사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도마의 복음에 대해해 석가를 성인에서 구세주로 승격시킨 것이 대승불교다”이처럼 무신론에서 출발한 석가의 철학적 가르침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적종교로 변질되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수행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자력구원을 주장한 석가의 가르침은 타력구원을 외치는 이상한 잡탕종교가 되고 말았다.

“교회의 평생교육 참여제도를 마련하라”

미래목회포럼,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규 개정 촉구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목사·사진)은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행하고 있던 평생교육

기회를 금년 6월 1일부로 전면 금지 당하는 조치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은 인간의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목회포럼은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며 비영리성으로 늘어나는 사회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며 평생교육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본 포럼은 끝으로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과 관계 제도의 수정이 통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단지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과 정부부처 간의 합의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사회공동체에 끼치는 건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 마련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은 2500만 명에 달하며, 종교 관련시설은 10만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두명중 한명은 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종교의 역할이 막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시행하고 있던 평생교육의 기회를 금년 6월1일부로 전면 금지당하는 조치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교 이외에, 가정 또는 사회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은 청소년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유아기, 장년기, 노년기등 인간의 일생동안에 걸쳐서 교육은 이루어진다. 교육은 인간의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교육의 형태에 관한 가장 넓은 개념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의무로, 제5항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를 법규화함은 선택이 아닌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학원법보다 평생교육법이 상위의 법일진대 학원법이 평생교육법의 상위법처럼 되어 평생교육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민간 부분의 평생교육 기능을 촉진 시키며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참여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종교단체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종교단체의 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시설이 현행법상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종교시설이 불법이 되고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원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평생교육원의 형태에서 비영리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원을 추가할 것을 제한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장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평생교육원 교육장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2011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모든 강좌가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이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 허용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생교육법에 교육대상을 ‘불특정 다수의 성인’으로 규정한 부분은 ‘성인’을 삭제하므로 초, 중등, 고등학생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관찰 지역 내 4~5km 이내의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학과목 강좌 개설은 금지하고 학원의 교습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하루 빨리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체계화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이 건립되고 국가적 재정지원과 함께 그 영향력을 끼워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수립과 관계 제도의 수정이 통합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지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과 정부부처 간의 합의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사회공동체에 끼치는 건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며 비영리성으로 늘어나는 사회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평생교육법및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복 목사

담 임 : 서명복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2시

삼일방 오후8시 금요기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현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보혜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저녁 예배	오후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유치부	1회 오전 8시 30분	2층 새롭방
주 일	유초등부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1회 오전 8시 30분	3층 아동센터
주 일	중등부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고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아예배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1272-4908, 0611278-0692 팩스번호 : 061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신천지 OUT!’ ... CBS, 신천지 척결 나섰다

신천지 고발사이트 오픈 및 신천지 대책 테스크포스팀 구성

기존 교회를 향한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소극적 방어에 머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기독교 방송 CBS가 신천지를 척결하는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CBS는 13일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신천지 고발 웹사이트를 공식 오픈해 신천지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CBS는 신천지의 교회 침투 전략과 피해 사례 등 신천지의 충격적 실상을 낱낱이 폭로해 왔다. CBS는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해, 신천지 관련 특집 방송과 보도물을 제작, 방송하고 일반 시민단체와 주요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CBS는 이를 위해 TV국, 보도국, 라디오 편성국, 크로스미디어센터, 선교본부 등이 대거 참여하는 등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CBS가 이제 신천지를 척결하는 데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신천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척결 운동의 전면적 실행을 위해 CBS는 오는 16일 <한국교회를 살리자! 신천지 OUT!>이란 신천지 고발 웹사이트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CBS가 제작한 고발 뉴스와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으며, 신천지의 포교 전략을 비롯해 대응 방법을 모은 자료가 올라와 있다. 모든 자료는 누구나 손쉽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돼 있으며,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로 공유도 가능해 어디서나 영상과 뉴스

가 활용될 수 있게 했다.

또 신천지 피해자 계시판도 운영해 제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CBS는 신천지대책국연합과 협력을 약속하고,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나 이단상담소협회와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변상욱 본부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방송 매체와 신천지 고발사이트를 활용해 신천지 피해사례 등을 널리 알리고 피해를 막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연대를 강화해 신천지 척결운동의 허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신천지대책국연합 대표 이덕술 목사는 “CBS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나서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현장의 소리와 자료를 적극적으로도 지원하고 홍보해서 CBS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현장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 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천지 OUT!>사이트는 인터넷 주소창에 ‘안티신천지.kr’ 혹은 ‘http://antiscj.cbs.co.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북한동포를 위한 중보기도 더욱 힘쓸 때

“자유, 평화, 인권, 복음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제12회 남북·조찬기도회

제12회 남·북 조찬기도회가 지난달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남·북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먼저 대회장 김정훈 목사는 대회를 통해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최되는 제12회 남북조찬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서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간구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의 기도회가 통일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

이어 최성규 목사는 예레미 1:7~10절 말씀을 인용 ‘그래도 통일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남과 북은 누가 뭐라 해도 한 민족, 한 동포다”고 전제 한 후 “한국교회 전체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자유, 평화, 인권, 복음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땅에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면서 특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하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애국가를 부르며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날 상임대표회장 김윤기 목사는 “통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서 22년 전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계기는 1989년 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월요기도회가 시작되어 라이프치히에서 니콜라이교회를 위시 토마

스교회, 미하엘교회 등, 개혁교회들이” 통일 월요기도회”를 이어왔고, 또한 서독의 교인들은 이를 적극지지하고, 지원하여 연합하여 마침내 라이프치히에 15만 명, 베를린에서 50만 명이 모여 하나님께 드린 중·서독 통일염원 촛불 연합기도회의 힘이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우리도 “두 개의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문을 길고 열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조찬기도회가 통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중보기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북조찬기도회는 김윤기 목사(남·북조찬기도회 상임대표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김정훈 목사(대회장)의 대회사,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의 대표기도, 주축자 목사(새빛교회·119지저스 구국기도회 대표회장)의 성경봉독, 코랄가리스 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한기총 증경 대표회장)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란 제하의 설교, 이광선 목사(미래포럼 대표회장·한기총 증경 대표회장)의 격려사, 김요셉 목사(한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손달의 목사(통합부총회장)의 축사, 황인찬 목사(한국연 공동회장), 한창영 목사(2018 동계올림픽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춘규 장로(한국미래포럼 상임회장) 등이 특별기도를, 박남수 목사(예장개혁신회 총회장)가 헌금기도, 김윤기 목사(남·북조찬기도회 상임대표회장)의 인사, 김호윤 목사(한장연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남북조찬기도회는 2001년 6월 28일 제1회 시작했으며 매년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 및 성도, 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오고 있다.

교회부흥·교단발전과 기도한국 위해 다짐

기도한국 대전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대회로 개최돼



총회설립100주년기념 기도한국 대전대회가 15일 대전 세로남교회당에서 개최됐다. 기도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전국대회를 앞두고 지방거점 7개 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가

장 먼저 열린 이번 대회는 대전지역 목회자 100여 명을 비롯해 일반 교인 2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전대회는 대회장 오정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증경총회장 장

차남 목사의 설교, 총회서기 고영기 목사의 비전 메시지 선포를 비롯해 가족과 교회,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교회부흥, 교단발전과 기도한국, 대전 성시화와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회는 10여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참석자들이 합심기도를 하고, 이어서 대표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이 직접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여 진정한 기도집회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장차남 목사는 <은혜의 백년>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부여하신 은혜로 첫째, 국권을 잃고 방황하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흥운동과 함께 총회가 설립된 것, 둘째, 일제에 굴복당해 제38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것, 셋째,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총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으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가난 속에서도 에베레설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꼽았다.

고영기 목사는 비전메시지를 통해 지난 100년을 회고하며, 향후 100년 총회가 가질 비전으로 첫째, 총회설립은 100년이지만 총회는 96회 밖에 맞지 못한 이유를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없는 나라와 총회를 이룰 것, 둘째, 총신은 우리의 심장이므로 총신을 살려내는 비전을 가질 것, 셋째, 클린총회의 비전으로 맑고 깨끗한 총회를 만들 것, 넷째, 선교 제일의 총회를 지향할 것, 다섯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총회가 될 것, 여섯째, 영성으로 소통하는 총회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새로남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전대회는 대전노회(노회장 전병학 목사), 동대전노회(노회장 김충도 목사), 서대전노회(노회장 김원필 목사) 대전중부노회(노회장 방정수 목사) 등 대전지역노회들이 연합하여 준비하고 참여했으며, 수준 높은 찬양과 질서 있는 진행으로 지역대회의 서막을 장식했다.

한편, 기도한국 대전대회에 이어 지역대회는 7월 22일 광주와 제주, 29일 전주와 충청(천안)개최되었으며, 8월 3일 부산, 12일 대구에서, 8월 26일에는 전국대회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 G I R O U N C H U R C H 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담임 정일량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일예배 오후 3:00 영락일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n.onmam.com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나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모상연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용지역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Th)	3년	4차에 대학교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수신학이수자는 2차에 한함	주안: 개령학(이름, 거울) 이단: 율리우스
	목회학석사(MA)	2년	4차에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신학원	신학(M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예교학석사(EDM)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과목과	2년	학력비율 50%를 충족한 후 신학원 입학자격 취득 고졸이면 2학년 2학기부터 편입	
	신학박사과정	2년	고졸자	
				신학석사 2년, 복교과목 2년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영사, 사본 4매)

4. 특전

-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전학
-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면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Th.D.) 연구원 원장: 모상연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의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004, H.P 010-9049-3731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화장실 : 061)242-1617
 자 화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 ⑨

제5부 보배로운 피②

누가복음 22장15절에서 주께서 열두 사도들에게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 먹기를 간절히 바랐노라.”고 말씀하셨고, 저녁식사 전에 먼저 잔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순교의 잔으로, 이는 순교를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보여 주신 보배로운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이르면 그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환란과 환란 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환란의 때에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호위하여 전부 구원(1절)해낼 것입니다.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예수께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이편으로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한 때 두 때 반 때 합쳐서 3년 반 안에 순교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소망하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환란 때에 순교의 강 건너 기(5~6절)를 도우십니다. 이날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12절)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 임하는 복으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영생(조예)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의 새 이름
2004년 6월 김선일 피살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시대의 말씀으로는 환란의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규격의 방주를 예비케 하여 대홍수를 견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때에 따른 말씀을 주셔서 미리 대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12~17절에서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먼저 순교를 했는데, 그것을 본 너희들도 신앙 예수께서 주신 순교케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들에게 발라암의 교리와 니콜라 파의 교리로 방황하지 않도록 책망하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긴다는 것은 온전히 순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될 우리에게 순교 당하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것이 감추어진 만나로, 현재까지는 감추어져 있으나 순교의 순간에 당하게 될 고통을 만나로써 기쁘게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부족함이 없었고, 오늘날 주님께서 성경으로 주시는 영적 말씀인 만나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환란 때가 되면 순교의 순간에 주님이 상황에 따라 말씀과 은혜의 역사를 만나로 주시는데, 그 만나로 인해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교의 고통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또한 순교 당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계 19:16)로 천년왕국에서 불려질 새로운 이름입니다. 순교 직전 최악의 고통을 겪을 때 순교 당하는 사람의 새 이름이 적힙니다. 이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왕으로 임명(계 3:12)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순교의 순간 인간의 힘과 인내로는 버틸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예수께서 이기는 자 이름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영적으로 확실히 위로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피 흘려 제물 되심과 같이, 베드로와 우리도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르도록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석그릇이

되어진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내일이면 죽임 당할 것으로 예정된 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도 야고보처럼 기쁘게 순교하게 하시는 주님 품안에서 안식의 잠을 잡니다. 이 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에서 빼내어 가이사라 지방에 머물게 합니다.

그 이후 베드로 사도의 행적은 베드로 전후서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며 본도, 갈바도기아, 비두니아 등 아시아에 흩어져있는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예수를 위해 고난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매우 귀한 일로 기쁘게 감당할 것을 당부하며 주의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더구나 아그립바 왕의 후궁들과 로마황제의 부인까지도 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로마황제와 아그립바 왕 등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로마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던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AD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지극히 큰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목격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신 후,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을 거쳐 보배로운 그릇이 된 베드로를 증거자로 사용하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 흰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보석그릇이 되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신랑 예수를 증거하며 예언하는 보배로운 일을 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목베임을 받아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습관성 분노가 수명을 줄인다!(40)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오히려 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신경질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현대는 상처의 시대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감날 정도로 사회의 구석구석이 상하고 병들어 이른바 상처투성이다.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 아닌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으로 여기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상처받은 인간이 토해낸 상처의 파편이 가정과 사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존심의 아성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이다. 마치 토치카에 홀로 사는 사람과 같다. 그 자존심이 때로는 우울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표출된다. 사실 우울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우울감에서 나온 자기괴사욕은 깊게 묻혀진 열등감의 표현이며 열등감 역시 자신의 존재를 절대시하는 교만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열등감은 겉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이 상처를 받을수록 우울감과 열등감이 깊어지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가 습관성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

한 귀결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지에는 보통사람에 비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 가량 높다는 듀크 의대팀의 연구결과가 나와 습관성 분노가 일시적으로 기분을 잡치게 하는 기능만이 아닌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보도된바 있다. 이는 마음과 신체의 건강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화를 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인격적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전에 자신의 상처가 더욱 깊어짐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의 신체는 유명한 권투선수의 관전치를 맞는 것같은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화를 참고 살하면 병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분별없이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나 분노를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비결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며 심신을 망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화를 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은 교육적 의미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 특히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아이에게 매질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부모의 단순한 화풀이인지가 명확하게 전달된다고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나 상대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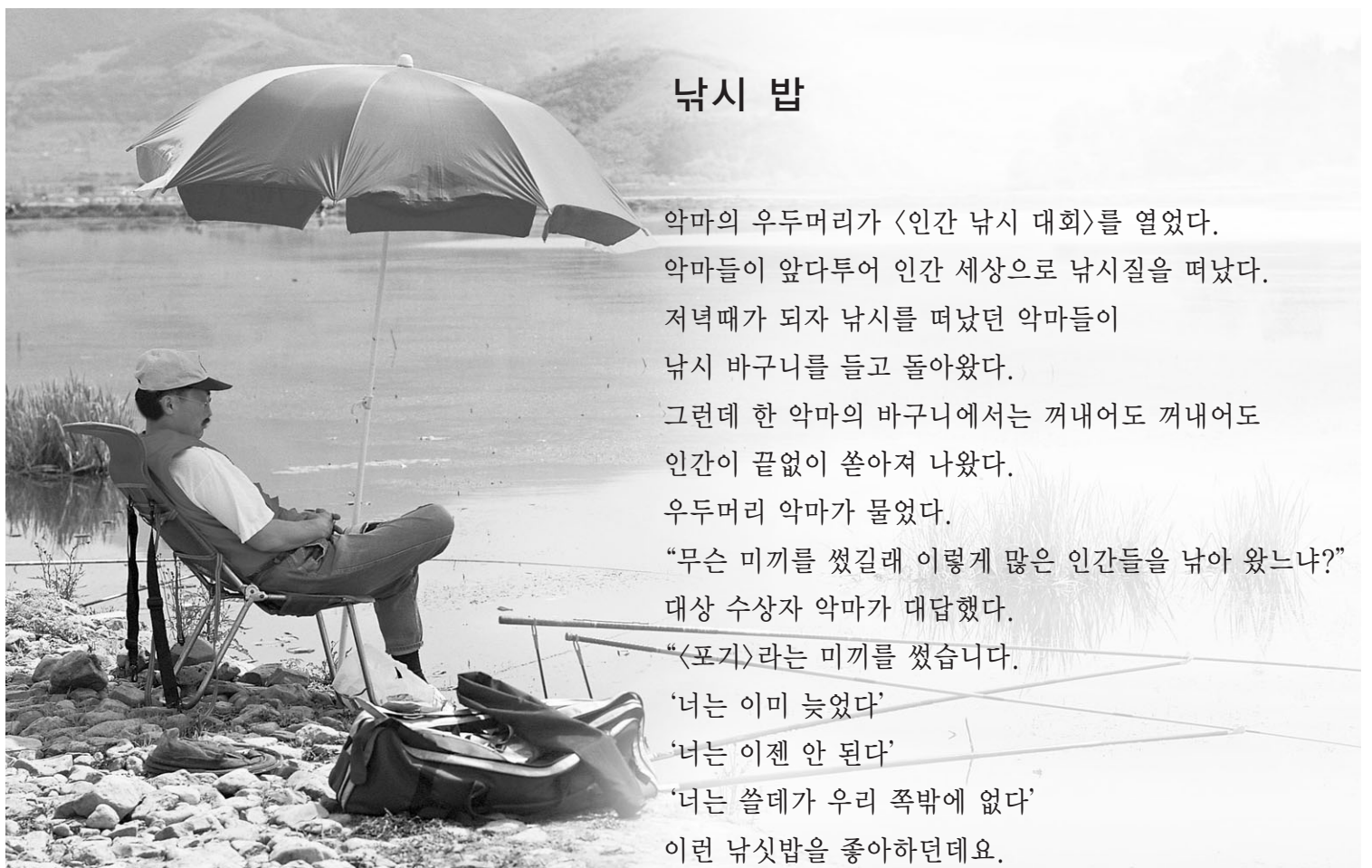
성경은 화내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한 톨포 늦추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늦출 것인가. 그것은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터트리는 것이 정말 상대방의 인격과 신앙을 위해서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만 참으라는 이야기다.

이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상처투성이의 불쌍한 “환자”로 볼 때만이 가능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황성주 박사



낙시 밥



악마의 우두머리가 <인간 낙시 대회>를 열었다.

악마들이 앞다투어 인간 세상으로 낙시질을 떠났다.

저녁때가 되자 낙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낙시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그런데 한 악마의 바구니에서는 꺼내어도 꺼내어도

인간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우두머리 악마가 물었다.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 왔느냐?”

대상 수상자 악마가 대답했다.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쓸데가 우리 쪽밖에 없다’

이런 낙시밥을 좋아하던데요.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원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설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이어문법(전 준덕 교수)
- 알기 쉬운 52주 헬라이어문법 저자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jintv방송신문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산 1번지
- 문의: 031-767-7651, 010-7520-765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 참석자 전원에게 「연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전용)

신구약성경 공인

김수정 원장(성경연구원 원장,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공인(公認)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딤후 3:16) 성령에 의하여 섭리로 보존 되고 있다(시12:6,7).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계시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진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의 도우심으로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다(고전2:6~16).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세상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알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인격을 거룩함과 온전한 자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이다(요14:26).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원 본문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중세시대 때나 불태워졌고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존하도록 섭리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원문이 없고 그 필사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높고 넓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 구약성경이 공인된 책으로 편집되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따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였다. 유대인들이 편집한 구약성경은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와서 BC 400년경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 편집되었다. 토라만을(모세5경) 정경으로 사용하였다. 토라에는 모든 것의 원리가 기록되었다. 원리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리를 가르치는 선지서가 BC 200년경에 편집 되었다. AD 90년경에 랍비 아카바에 의해 아가서와 전도서와 예

스터서가 정경으로 공포되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유대인들은 성을 다 무시하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정경으로 공인 된 후에는 율월절기간에 읽는다. 전도서는 엘리히의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으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정경으로 공인된 후에는 장막절기간에 읽는다. 에스터서에는 엘리히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존함이 한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정경으로 공인 된 후에는 푸름절에 읽는다. AD100년에 암니아회의에서 토라 5권과 선지서 8권과 성문서 11권으로 총24권이 정경으로 편집되었다. 이 성경은 책 제목이 다르다. 토라의 첫 책인 창세기는 ‘처음에’, 출애굽기는 ‘이름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로 5권으로 편집되어 있고 선지서는 선지서로서 ‘예호수야’, ‘지도자들’, ‘쉬무엘상,하’, ‘열왕상,하’로 4권이며 후선지서는 대선지서는 ‘예사야’, ‘이르메야’, ‘에헤즈렐’로 3권과 소선지서는 12권을 1권으로 편집되어 총 8권이다. 성문서는 지혜서로 ‘찬양들’, ‘이율’, ‘잠언’ 3권이며, 오죽으로 ‘룻기’, ‘노래들 중의 노래(아가서)’, ‘전도자’, ‘에카(에레미야애가)’, ‘에스테르(에스더서)’으로 5권이다. 그 외의 책들로 ‘다니엘’, ‘에즈라 느헬

야’, ‘왕조실록 상하’로 3권으로 편집되어 구약성경은 24권으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교회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어진 39권으로 묶여 있는 연합성서공회원문을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AD100년경까지 기록되어 필사되었다. 여러 문서들이 회합되었는데 문서 작자의 이름이 있는 문서인 외경과 작자의 이름이 없는 문서인 위경도 있었다. 27권이 정경으로 공인되기까지는 본문비평으로 1)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문서인가? 2)진리를 기록한 문서인가? 3)보편타당성이 있는 문서인가? 4)영감성 있는 문서인가? 5)구원의 목적을 기록한 문서인가?에 따라서 편집되기 시작하였다. 주후 200년경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사용된 신약성경은 무라토리단편과 네 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서(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베드로묵시록 솔로몬의 지혜서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나 공적으로나 예배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책으로 헤르마스 목자서가 사용되었다. 주후 250년경 오리겐이 사용한 신약성경

네 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서(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었고 논의 대상이 된 책들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헤르마스 목자서 바나바서신 12사도의 가르침 히브리인 복음서를 사용하였다. 오리겐은 필로의 영향으로 성경을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취했다. 주후 300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문서를 읽는 자는 잡아 죽이고 문서는 불태웠다. 그러나 기독교를 공인 한 후에는 오리겐의 성경을 유세비우스를 통하여 50부 복사케 하여 사용하도록 결정 되었다고 한다. 시내 사본과 바티칸사본이 복사 된 것도 이때 일 것이다. 유세비우스가 사용한 신약성경 네 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서(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요한계시록(저자가 논란의 대상이 됨). 논의의 대상이었으나 잘 알려진 책들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제외 된 책들은 헤르마스 목자서 바나바서신이 사용되었다. 주후 400년경 칼타고 공의회(AD 397년)에서 어거스틴의 제시로서방교회에 의해 신약성경이 27권으로 확정 되었다. 칼테쉬 공의회(AD 419년)에서 동방교회는 신약성경을 27권으로 확정 되었다. 4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서(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으로 확정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케 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므로 사람들이 공인(公認)하는 성경이 아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 공인(共認)되어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게 주신 언약

조건 아래 살아가는 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산마루 설교 중에서 이주연 목사

부모가 물려준 조건 사회가 규정해 주는 나의 조건 이 조건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내게 두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단순히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불리움을 받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였습니다. 그러나 99살이 되었을 때까지 24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도 자식 하나(이삭) 얻지 못한 지경이었습니

다. 이렇게 기달 수 있었고 마침내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고 연단을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에게 둔 한번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이루는 최후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 없이”(창 17:1하) 살아갈 뿐입니다. 인색함은 우주에 대하여 달려진 의식의 반영이기에 의식이 열리는 순간 인색함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연>

칼럼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모성이라 생각한다. 젖 먹이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핌을 알지 못한다. 조금만 불편해도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기차 안에서 어느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어린 아기를 낳아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았다. 아기는 계속 우는데 엄마는 모국어로 아기가 울지 않도록 땀을 흘리며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아기 엄마는 열자리 손님들을 전혀 의식 하지않고 아기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모성은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 하였지만 내 아기를 위해서라면 아랑곳 하지 않는 위대한 모성이었다. 우리도 이제는 한 민족, 단일민족 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것 같다. 국내에 있는 국제결혼자들이 13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족 개념에서 이제에는 피부와 색깔이 다르고 또한 언어도 다른 국제화 시대가 되었다. 개방 시대로 접어들어 시장에서 윤리 도덕은 물론 우리의 모든 법을 가르쳐 한국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기업이나 근로지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태어난 2세들에게 민족에 대한 반감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복지 면에서도 동일한 처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외국인 2세들도 우리 정치에 참여 할 것이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교육, 사회 교육이 그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도록 시행해야 될 것이다. 어린 2세들에게 차등감과, 격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격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다문화 가족 현실을 우리의 선조들이 본다면 말 할 수 없는 기괴감을 느낄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이러한 유색 인종과의 융합에 있는 것 같다. 정치 경제 등 각종분야에 입문 하는 자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 한다. 정치의 경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기 전공에서 배운 학문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선인자들의 모습을 따라 가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공직은 소임을 마치면 나가는 게 된다. 그중에는 재임기간의 실적과 명분을 과대 포장하여 나가는 자들이 많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공적은 역사 기록에 오래 보존 되어야한다. 모든 역사는 후세들이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운유함은 최고의 인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성경 역사에 가장 운유한자는 모세를 말한다. 출애굽기 (4:12)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장면에서 모세의 대답이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답이었다. 민수기 (12:3) 이사람 모세는 운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 진실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나타날는지, 운유함과 청렴을 겸한 지도자가 들어오기를 국민들은 희망 하고 있다. 또한 나가는 지도자는 국민들의 아쉬움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란다. 정치는 여야의 대립이 아닌 발전을 위한 협의의 정치가 되어야한

다.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이취임의 환송을 국민적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기관이할 갖추어야 예우라 생각한다. 나가는 자들의 비리나 들추어내면서 헐 웃기를 한다면 서로의 잘못이다. 한 민족의 슬기를 지켜온 백의민족이 이제 는 다문화 시대로 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서서히 유색인으로 변하는 사회 속에서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 모두가 국가를 위한충정으로 이해와 사랑과 응서로서, 발전 사회를 이루어 세계경제국으로 손색이 없어야 하겠다. 새로 들어온 의원들과,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치의 결속은 사회의 결속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인 것이다. 앞으로 있을 새로운 지도자 선출에 국민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서영웅 목사
류리단 정로교회 담임
본지 성령이사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후 11:00
주일 방 예배	주일 방 7:30
수요 방 예배	수요 방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방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모임	토요 오후 6:30
평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분	시 간
1	홍남서도이거대미	화요 오전 11:00
2	바울교실	주일 오전 10:00
3	학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평년시간
5	오도미 육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수련회	주중 매일
8	제약단련	주중 매일
9	홍남아동평화교과실	주중 매일
10	홍남성경대학	오전편 [수, 목] 오후편 [목, 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430-910

430-910

담임 이 선 목사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주 일 오후3:30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4층 나사렛성전
셀 예배	셀장대현 교회 오전10:00, 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철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응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한국기독교언론협 2012 하계수련회 열어

한국기독교의 대변지 시대의 나팔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다져



한국기독교언론협회(이하 한기언, 회장 윤법석) 2012하계수련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양양 하조대 소풍(대표 송광우 장로)과 하조대감리교회에서 열려 기독교언론인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아름답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렘10:15)"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허식목사(한국경목총회 총회

장)가 강사로 나서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으로 이끌었다. "신명기 6: 4~9"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허 목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된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언론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섬김으로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 서주길" 당부했다.

회장 윤법석 국장(크리스천헤럴드)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협이 아직은 부족한 것도 많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 단결을 도모하면 하나

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한국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건강한 언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됨을 강조했다.

박병득 총무(기독교성결신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김성수 서기(기독인뉴스)의 대표기도, 우슬초 목사의 특송, 정기남 감사(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배 외에도 아름다운 하조대 관광과 수영, 설악산 정상 방문 등을 통해 영육간의 건강함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양군기독교연합회(회장 박재성 목사)와 별도의 기자회견 시간을 갖고 인근지역(강원도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휴휴암의 불법 탐벌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횡포에 대해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동취재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언론협(The Christian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은 올 하반기에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미자립교회 돕기 등 이웃 섬김을 위한 프로그램과 한국교회 발전을 고무시키기 위해 "아름다운교회상, 올해의 목회자상" 등을 제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달트럭의 횡포

운행하고 있었다. 위험물 수송차량이 제동 등이 고장 난 채 운행한다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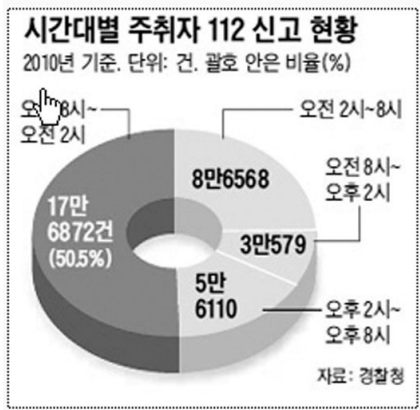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걸어 시정을 요구했다. 본사에서는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크던 작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세련되게 이미지 관리를 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그런 관리능력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나치지 말고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도로의 무법자들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런 난폭 운전자들이 발을 못 붙인다.

'나만 참고 말지' 하고 그냥 놔두면 그런 난폭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다. 배달트럭은 더 이상 수송용 차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업 이미지다.

독자제보 장일남님

술타령 문화 관대해 범죄 키우는 한국

서울 홍대앞 새벽 5시30분, 첫 지하철은 '취객들 귀가 열차' 불쾌감



우리 사회 우리 젊은이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아들 딸, 입었는지 벗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젊은 여성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망가졌나?... 3시 반, 손님 있는 술집 67곳... 4시 반, 자리 없는 포장마차도, 5시부터 역으로 수백 명 '행진'... 객차 술 냄새 진동, 빈자리 없어...

때론 고성과 욕두문자를... 눈뜨고 볼 수 없는 민망한 일들... 진심으로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민족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할 때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웬지 눈물이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를 타고 취재했다. 2차, 3차도 모자라 해가 뜬 아침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그러진 술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홍대입구역에 대기 중인 양방향 첫차 2대를 직접 돌고, 승차장으로 내려오는 사람 수를 세어보니, 첫차를 탄 750여 명 중 700여명이 술 냄새를 풍길 뿐 아니라 취객들이었다. 인근 클럽이나 포장마차, 감자탕집 등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전전하다 이 시간에 비로소 귀갓길에 오른 것이다. 양방향 첫차 두 대의 좌석 수는 1080석. 지하철 첫차는 '주취 자를 위한 귀가 열차'였다.

지난 22일 오전 3시 20분, 서울 홍대앞 앞거리, 술에 취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미 환하게 날이 밝아오는 22일 오전 5시, 홍대 입구 역 근처의 한 실내 포장마차는 빈자리가 없을 만큼 성업 중이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오전 5시 30분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는 '취객 열차'였다. 지하철에 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잠에 빠진 모습. 22일 오전 5시 40분, 날이 환하게 밝았지만 홍대 앞 공원에서 여전히 술판이 한창이었다.

5시 10분까지만 해도 지하철역 플랫폼에는 10여 명의 사람만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클럽을 오가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5시 30분에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를 타기 위해서다. 홍대입구역 9번 출구로 향하는 수백 명의 모습은 '행진'을 방



불쾌했다.

5시 20분쯤 첫차에 오른 사람은 약 250여 명으로 늘었다. 5시 25분이 넘자 500명을 넘어섰고, 맨 앞과 뒤쪽 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첫차를 타기 위해 일찌감치 승차

장에 내려와 벤치에 앉고 있던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서 결국 첫차를 타지 못하기도 했다.

일 반 석과 노약자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좌석은 고개를 푹 구고 굽아 떨어진 밤샘 취객들의 차지였다.

지하철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다. 홍대입구역 관제자는 "첫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90% 이상이 밤을 새우고 귀가하는 사람들이다"며 "서울 시내에서 만석(滿席)으로 출발하는 첫차는 이곳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밤중 심야에서 새벽까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하면서 한번쯤 서울 명동의 거리와 남대문, 서울 역, 홍대입구역 등을 견학하면서 스케치하는 것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 죽어가는 이 사회 젊은이들, 잘못된 술 문화를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제

“젊은이들이여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 (고전1:18)
거룩한 기름부으심 (시편 89:19-37)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 (눅17:20~21)”

Special Transformer 중앙노회 주최 청소년 연합수련회

(목회자 자녀 회복 복음 집회)

젊은이들이여!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일어서라!”

- ◇ 일 시 : 2012년 8월 1일(수)~4일(토) / 3박 4일
-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기도원(마식) 소망성전
- ◇ 대 상 :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 ◇ 회 비 : 3만 5천원
- ◇ 준 비 물 : 세면도구, 성경, 필기도구, 이불, 여벌 옷
- ◇ 프로그램 : 복음 집회, 청소년들의 특별한 나눔, 상처 치유, 성령 체험, 자아상 확립, 사명의식 회복, 인간관계 회복, 특강
- ◇ 강 사 : 정기환, 정일량, 박종천목사, 박영광전도사 외
- ◇ 후 원 : 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지저스 타임즈, 전원중앙교회, 행복을 주는교회, 사랑의빛교회, 향기로운교회



3차 청소년 연합수련회



4차 청소년 연합수련회



5차 청소년 연합수련회



6차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최 : 중앙노회(웨신)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아래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0-2956-9191(노회장 정기환 목사), 010-4761-1020(부노회장 손백두 목사), 010-8281-8889(노회서기 최재필 목사)

◆ 집회 특징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 질 때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 4:12)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헛수와 하지 많시다

성경: 에스겔 5장13절-17절 찬송가 95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범죄한 백성들을 형벌하시되 기근을 보내어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헛된 수고와 노력에 힘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들이 되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6장1절-14절 찬송가 46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실 때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남은 자들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라

성경: 에스겔 7장1절-13절 찬송가 161장
본문을 보면 돌아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허비하고 끝까지 패역으로 달음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보여주시는 것은 그 날이 임박했으므로 이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과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 그 분 안에서 새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지옥과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경: 에스겔 7장14절-18절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징벌은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잘 할지라도 주께서 재앙을 보내시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과 패역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군대를 몰고 오셨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슬피 울며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은 자기 본분을 알고 이에 합당하게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

정들 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패망의 지름길

성경: 에스겔 7장15절-27절 찬송가 332장
본문은 악행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패망의 지름길은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에 대해 패망을 선고 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사람과 가정 그리고 민족은 반드시 패망이 따르며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패망의 지름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권능의 목적

성경: 에스겔 8장1절-4절 찬송가 27장
본문은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와 권능이 거거서 내게 임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은 2절에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또한 그 권능이 임한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우상의 벽을 깨부수자

성경: 에스겔 8장5절-13절 찬송가 327장
본문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스라엘의 죄의 장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철저히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상의 벽을 깨부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돈독하게 하여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8장14절-18절 찬송가 490장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원드미션 총재
- 국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신앙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타락 함대로 타락하였고 영적상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은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9. 심판을 피하는 방법

성경: 에스겔 9장1절-11절 찬송가 168장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달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명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그분이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는 살육하는 무시무시한 기계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들이 각기 손 안에 든 이 파괴하는 병기는 가증스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공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두 쳐서 죽이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됨을 명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으로 입성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가정

성경: 에스겔 10장1절-8절 찬송가 350장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심판을 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

나님의 영광이 왕좌가 아닌 문지방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문지방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위에 임재하시어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

성경: 에스겔 10장9절-17절 찬송가 354장
본문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이 이 세계 사람들의 역사관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나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체념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정

성경: 에스겔 10장18절-22절 찬송가 349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거하실 수 없도록 성전 안을 죄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그저 한 건물일 뿐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랑은 주고받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긴날 지치고 지치도록 교회 일에 열심을 했는데 주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교인들이 입술만 가지고 절자나 따지고 반대 패거리나 만드는 일로 인한 분노를 목사 억울분노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못 말린다는 것이죠.

이 증상이 깊어지면 목회자는 탈진하고 저주가 나가고 목회는 골병들고 맙니다.

날씨가 무더운 까닭인지 이 증상이 나를 사로잡아서 견딜 수 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깊은 밤 신문 한쪽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열정입니까, 희생입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이 희생이면 위험하지요. 주기만 하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하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안에서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조선일보 7월 22일〉

임실 치즈로 유명한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희생이면 위험한 노릇이 됩니다. 〈이주연〉

헛된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래인보우 아트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색동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래인보우 비전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래인보우 아트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래인보우 비전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래인보우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래인보우비전홀)
수요기도회 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래인보우아트홀) 새가족모임(주/차) 주일 오전 9:30(새가족실)
수요기도회 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래인보우아트홀)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래인보우아트홀)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032)552-5200 Fax. 552-5204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려질 수 있음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수요침례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가정	매일 미지각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5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6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당회장 엄영수 목사
(대기협 회장)

성락교회 53주년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감사예배

황덕창 목사를 원로목사 추대, 황덕광 목사는 위임목사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락교회가 설립 53주년을 맞아 담임 황덕창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황덕광 목사(합동보수 총회장)를 본 교회의 당회 장으로 위임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성락교회는 지난달 7일(토)오후 2시 설립 5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에 평서노회장 최병수 목사 인도로 부노회장 이순복 목사의 기도, 서기 신원규 목사가 성경 출 32:30~35절을 봉독하고, 시운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모세의 묵양정신"이란 제하의 말씀을 증경총회장 박병진 목사(예장 합동보수 망원동)가 선포

했다.

제2부 원로목사 추대는 황덕광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황덕창 목사를 성락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이어진 제3부에서 위임국장 윤상대 목사는 황덕광 목사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공포했다.

이날 담임 황덕광 목사 사회로 홍재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철수 목사(증경총회장), 황중철 목사(증경총회장), 등이 축사를, 인회영 목사(증경총회장)는 위임목사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정재규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회장)가 격려사를, 충무신우(기독교장로회) 중창

단의 축가가 있었다.

이어 황덕창 원로목사의 답사가 있은 후 권창섭 장로(성락교회)의 광고 및 인사가 있었으며, 정문호 목사(증경총회장)축도로 마쳤다.

이날 인터뷰에서 성락교회 위임목사 황덕광 목사는 형 황덕창 목사 뒤를 이어받은 뜻 깊은 위임 목사이다. 이날 취임한 황 목사는 부친 고 황하운 목사를 소개하면서 교회역사에 대해 말한다.

이복에서 월남할 당시 형제가 11남매였는데, 결국 형님 목사를 비롯 형제 네 명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락교회가 1959년 7월 6일 부친 고 황하운 목사님의 의해 교회가 망원동 진펄 밭에서 개척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성락교회가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복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가족들을 잃고 네 명이 남았지만 현재 제일 큰 형은 통합교단에서 원로목사로 은퇴하여 캐나다에 있고, 둘째 형은 황덕창 목사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셋째 형은 통합교단 문화교회(신당동) 장로라고 한다. 황 장로는 학계에서 대

학교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합경남도 도지사 및 회장이며, 그리고 위임목사로 취임한 황덕광 목사가 막내라고 한다. 황 목사는 본 교회에서 자랐고, 집사, 장로, 부목사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어 감사하지요 한다.

또한 황 목사는 형님 황덕창 목사님은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이곳에서 5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사역을 해 온 이 자리에 성락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현재 망원동 지역에 큰 교회들 중에는 성락교회 출신들이 많으며 아울러 형님목사님이 마포구에서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한다.

위임목사 황덕광 목사는 소감과 더불어 목회비전을 이렇게 말한다.

형님 목사님이 본 교회를 설립하고 53년 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해 오면서 기도와 능력의 말씀으로 6.25 전란 후 시대적 어려운 시기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양떼들의 가정을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였고, 그 모

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에 형님이 해 오신 목회에 큰 변용은 없다고 말한다.

또한 황 목사는 형님목회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목회, 그래서 말씀중심으로 설교도 강해하셨다. 형님 뒤를 이어 부임한 저는 형님께 받은 목회방향에 초지일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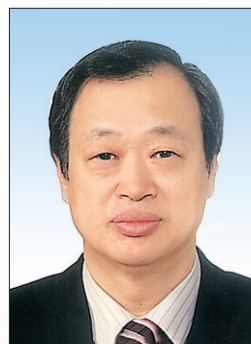
그러면서 황 목사는 초지일관 영적인 권위로 교회를 섬기며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락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이 주의 일에 일사천리로 활동하는 모범적 교회라며 믿음으로 성숙된 성도들을 자랑했다.

따라서 황 목사는 말씀으로 성숙된 성도들을 말씀에 바탕으로 목회방향을 약간의 변화를 두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님 목사는 한 시대의 전반기를 이끌어 오셨다면 저는 개혁적인 성향으로 진리를 보수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개방해 가면서 완고한 보수에서 개방정책을 갖고 한국교회의 제도권에 있는 것들을 개방 수용하고, 한기총을 비롯 선교하는데 있어 성도들로 눈을 뜨게 하면서 성도들이 교계를 넓게 바라보는데 힘을 것이며, 선교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영적인 질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독교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대 정치적인, 대 교제, 나라를 바라는 시야가 넓혀지는 목회를 구상하고 성도들의 시야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성락교회는 1년 내로 선교센터를 더 확장할 계획이며, 몽골지역에도 교회와 신학교를 짓고 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영역을 넓히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목회의 비전을 밝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임찬미 목사

담임목사 : 임찬미 목사
장로 : 최원영 선교사
전도사 : 전은혜 선교사, 함다니엘 선교사
조예스터 선교사, 황연아 선교사
전도사 :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주자 : 박시은 박시내 정은주



예배시간	찾아오는길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 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 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 9:00 축복성회 매주금, 토 저녁 9:00~ 주요예배 주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 7:30~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 H.P : 010-4436-7060

대기자 칼럼

18대 대선이 임박해 오면서 때 아닌 5.16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일단의 혁명군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박정희 소장은 도피 중에 복귀한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내각총사퇴 결의를 거쳐서 5월 18일 정권을 인수 받았다.

5.16혁명당시 혁명군의 제1성은 “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고 한 혁명공약 제 1장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반응은 윤보선 대통령의 “을 것이 왔다”고 한 독백이었다.

최대의 우방인 미국은 혁명의 성격을 파악지 못해 하루가 지난 5월 17일에서야 UN군 사령관의 성명으로 군사혁명을 지지하였으며, 4.19 이후의 혼란과 민주당정권의 무능

에 질릴 대로 질린 지식인을 포함한 사회분위기는 군사혁명에 환호하였다.

소위 진보로 위장한 중북 세력들이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폐해할 때 김일성 대신에 김구를 내세우고, 근대화대통령 박정희를 욕할 때 앞세우는 장준하가 발행하던 정치평론잡지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두언에서 5.16혁명의 당위성을 발견케 된다.

<절정에 달한 국정(國政)의 문란, 고질화(固疾化)한 부패, 마비상태에 빠진 사회적(社會的) 기강(紀綱) 등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民族的) 활로(活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4.19 혁명(革命)이 입헌정치(立憲政

治)와 자유(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5.16 혁명(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1961년 6월호 사상계(思想界) 권두언 장준하(張俊河) -

박정희를 국가건설과 산업개발의 스승으로 여긴 중국의 등소평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6.25남침전범 원흉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부친 김일성과는 불구대전의 원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5.16 역사적 진실은 못 감춘다

유신에 대하여 김정일만도 못한 안목으로는 역사적 진실은 못 보

지피지기라는 적(敵)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것이다.

김정일은 6.15선언 만 50일 뒤인 2000년 8월 5일 박지원 문광부장관이 KBS 박권상, 한겨레 최학래 등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주 46명을 평양으로 끌고 간 채류 마지막 날인 12일 오찬장에서 남북간 체제경쟁에서 김일성을 패퇴시킨 박정희에 대하여 냉철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일은 “박정희 평가는 후세들이 해야지 동참자들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걸 수박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가 돼서는 곤란합니다.”라며 오히려 남한 학자나 언론인보다 더 객관적이고 긍정적 평가를 하

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은 경적필패(輕敵必敗)라는 춘추전국시대나 삼국지 이래 역사적 전훈(戰訓)의 기본을 아는 자였다고 본다. 그런 김정일이 유신의 부활을 겁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남한에서 박정희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 온 딸로서가 아니라 박정희 근대화 철학을 체득한 숙명적 라이벌 박근혜의 등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과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가져 온 김정일이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숙명적 라이벌의 실체를 가까이서 파악할 필요 때문에 2001년 5월

12~14일 박근혜를 초청했을 것이며, 박근혜는 부모를 죽인 원수의 동정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기본으로 방북을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김정일로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겸 숙적(宿敵)이라고 할 박근혜를 피하기 위해서 남(南)에 종북세력과 합작으로 박근혜를 조기에 제거 내지는 적기에 고사(枯死)시킬 작전을 펼친 것이 2006년 및 2007년 신년사를 통해서 “유신(維新)의 독초(毒草)(박근혜)를 제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선에서 반보수진보대연합으로 친미보수반동세력을 결성적으로 매장해 버리라고 지령(指令) 선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의 유훈(遺訓)을 실천해야 할 北에 김정은이나 좌파정권출세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종북반역세력연합=진보대연합=야권연대에서는 5.16쿠데타와 유신타도 구호로 박근혜를 고립 무력화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2000년 8월 12일 김정일의 ‘유신평가’를 현장에서 지켜 본 박지원이 박근혜에게 공포감과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당여한 일인지도 모르며, 야권연대주력인 민통을 이끌고 있는 이해찬으로서 반유신타령과 5.16쿠데타 비난 말고는 박근혜를 공격할 획기적인 네거티브 프로파간다 소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경선(競選)국면이라고는 하지만, 김문수 안상수 김태호 임태희 등 당내 인사의 5.16 폄하와 반(反)유신공세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민중당 출신 김문수의 경우 반유신이 체질화 됐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치면 부족함만 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61년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은 5.16과 싸우면서 건설자자는 1972년 10월 유신이 없었으면, 여야가 기를 쓰고 차지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에는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2050를렵에 가입한 세계 10위권 강소국(強小國) 대한민국은 월남과 함께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300만 씩 굶어죽는 아귀지옥(餓鬼地獄)에서 신음하거나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동반성장과 교회 역할 필요한 때이다”

사회·경제 양극화 해법 강연 및 기도회



한반도 복음회 중앙협의회(총재 배진구 목사·사진)는 7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집사(남포교회,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를 초청 ‘2012 사회, 경제 양극화 해법 대국민 강연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운찬 이사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히 동반성장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진지한 토론을 갖고 더불어 잘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운찬 이사장은 “한복합 총재 배진구 목사님과 교계지도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며 선을 이루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동반성장과 교회 역할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가난한 가정의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 남다른 열정으로 말씀을 사모했다.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나의 영적스승인 스코필드박사는 1958년 한국에 영구 귀국해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주력하며 당시 나와 고 김근태 의원 등에게 비공식적 영어성경공부를 가르쳤고 돈독한 우정을 지속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주일성수는 물론 신앙생활에 부끄럽지 않고 법사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겸손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동반성장연구소는 먹고 사는 문제 및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동반성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이며,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함께 희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더불어 공유할 수 있다”며 “1%와 99%의 사람들이 창대한 대한민

국을 위해서는 동반성장 체제로 탁월한 국가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또한 균형 있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당부했다.

한복합 총재 배진구 목사는 “스코필드 박사 추모공원 건립행사에 다녀왔다. 일제 강점기 캐나다 평신도 선교사 신분으로 조선땅을 밟아 3.1운동을 돕고, 일본군의 제압리교회 만행사건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1970년 4월 16일 한국 사망, 한국명 석호필)를 기리는 추모공원이 한국과 캐나다 합작으로 조성된다. 장소는 스코필드 박사의 고국인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이며 약 1만평 정도의 부지에다 한국형(동상, 한국정자, 연못, 소나무 등)공원으로 만들어 진다.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 정/관계 인사, 스코필드 박사 추모공원 건립에 공헌한 캐나다 한인사회 지도자와 교민 등 한국교회 대표로는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도 참석했다. 솔직히 동반성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 계승할 추모공원 건립행사에 참석, 정운찬 이사장의 강연을 통해 동반성장과 교회역할의 필요함을 깨달았다. 부득불 동반성장연구소가 더불어 잘사는 큰일을 감당할 확신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상진 목사의 찬양단과 함께 조성철목사(빛과진리의 교회)의 사회로 이강명목사(민복협사무총장)의 기도, 이태원 목사(우물가선교회)의 성경봉독, 박용원 목사(광명일직교회)의 클라리넷연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병운목사(나라경영연구원)의 설교, 강수정선교사(찬양사역자)의 헌금송, 김상영목사(임마누엘교회)의 헌금기도, 이태원 목사(명광사(광명교회)의 광고, 정도출목사(한기부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또한 2부 강연에 이어 3부 기도회는 윤요셉목사(한복합총괄본부장)의 사회로 119구급대 선교단의 울동, 이상모 목사(목양교회), 최석우목사(푸른성교회), 남세도목사(중앙원격평생교육원), 주낙자목사(119기도회), 김영신 목사(명광사(광명교회)의 특별기도 순서와 이재창목사(5.2선교회)의 폐회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22세 된 청년 그는 왜? 이 청년은 전과 2범으로 현재 경북북부 제 2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수용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돌을 던지는 경향이 종종 있다.

물론 범죄를 하였기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자신이 죄 값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대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22세 된 청년의 경우도 사연이 있다.

제가 이 청년을 알게 된 경우는 이렇다. 교도소 측에서 저에게 한 수용자가 있는데 그 수용자는 지금 가석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석방이 되었지만 보호자가 없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에 목사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면 가석방 대상자로 상부에 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하고 그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직원에게 말을 하니 그 직원이 이 청년은 참 모범적이고 참신합니다. 그러나 어려서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이 7세 때 이혼을 하였고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2세 된 청년이 왜, 그 사연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 집에 오면 아버지는 폭력을 하였고, 새 어머니도 폭력에 동참하여 주변에서 이 청년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려서 부모에 대해 가정에 대해 상처가 많이 있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청년은 주

변에 적응을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였다. 고아원에서 나와 열심히 살다가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의해 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열심히 교도소 안에서 책도 보고 주변에 본이 되기에 이번에 가석방 명단에 들었다는

것이다. 부모의 잘못된 행실이 자녀들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 즉 기성세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문제만 지적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유명철은 학교에서 선생의 편견의 말이 살인자로 만들었다.

신장원은 어른들의 행실이 그에게 잘 못된 가치관을 만들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성세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삶은 소금과 빛이 되고 있는가? 내 아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기학 기자
포항지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예신총회 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 ---섬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살전 3:8)



담임 유영섭 목사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 예배와 교육안내 ◆

예배	· 주일 대 예배: 1부/오전9시 2부/오전11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학교	·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50분
	· 구역 예배: 각구역별로
평신도교육	·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영양교육	· 유 치 부: 유치부설(지상총)오전11시
	· 청소년부: 청소년부(지하2층)오전9시
영양교육	· 아 동 부: 아동부설(지하층)오전9시
	· 영 아 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설)
영양교육	· 새 가 족: 주일 오전10시20분
	·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
영양교육	· 성경일독: 아동부설 주일 오후 1시
	· 베델성경: 목요일 오전10시,오후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지저스타임즈 · 한국경목총회 협력관계 열어

한경총 총회장 · 사무총장 본지 상임이사 추대



한경총과 JTNTV 지저스타임즈 양측 대표가 조인식을 갖고, 한경총 총회장 허식 목사,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를 본지 상임이사로 추대하고, 한국경목총회는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를 경목위원 및 취재보도 등을 총괄하는 언론 대표로 위촉했다. 한국경목회(총회장 허식 목사)와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양측은 7월 19일(목)~20일(금) 양일간 강원도 양

양에 위치한 하조대 소풍에서 본지 2012년 제4차 정기 이사회 및 한국경목총회(이하 한경총)와 취재보도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전국 각지에서 이사 및 21개 지사장 등이 모여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제4회 정기 이사회 및 조인식은 본사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등불교회)의 사회로 박수영 목사(대구지사장, 행복샘 교회)의 대표기

도, 우슬초 목사(한경총 회원, 추성청각장애인교회)의 특송, 본사 사장 소진우 목사가 신7:6-7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임찬미 목사(상임이사, 온누리찬양교회)의 봉헌기도가 있는 후 “지저스타임즈(JTNTV)와 한경총” 양측 대표가 나와 상호 취재보도 협약식을 하고 증서를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양측 대표 허식 목사(한국경목총회장, 과천영락교회)와 소진우 목사(사장, 예복교회)가 각각 인사말을 전하고 축하했다.

또한 본회 상임이사 송광우 장로(하조대소풍 대표)에게 본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경목총회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의 진행으로 총회장 허식 목사가 본회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와 우슬초(본명 박용숙)목사를 경목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속초경찰서장 조지호 총경을 대신해서 지귀대 소장이 환영사를 대독했다. 이어서 합심기도회를 갖고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승현 목사(논설위원, 당진 평안교회)가, '한국경목총회

와 60만 경찰가족 영혼구원을 위하여' 박양우 목사(상임이사, 한국경목총회 부서기)가 본사와 전국 21개 지사를 위하여' 정대성 목사(부이사장, 온누리찬양교회)가 미국 하와이 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신문(사장 김재원 목사)과 본사와의 제휴 및 협약을 위하여' 홍향표 목사(한경총 사무총장, 사랑의교회)가, 한경총회장 허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또한 이날 2부에서 양측은 서로 악수 및 인사를 나눈 뒤 한경총 상견례를 가지며 신규인원 소개가 있었다. 이후 본사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주관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이날 행사는 한경총 총회장 허식 목사와 본회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와 이사장 정기남 목사의 선물이 있었으며, 사장 소진우 목사가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시종 은혜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서로 결속을 다지는 모임과 행사를 마쳤다. 한편 양측 조인식을 통해 양단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인천지사장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예장합동 제34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성황

3,500여 명 참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다져

예장합동 제34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남승찬 장로) 하기수련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는 주제와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 14:42)”는 표어 아래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예장 합동 총회 장로(권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전국에서 99개 노회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수련회 감사로는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총회장 이기창 목사(전주북문교회)를 비롯하여 장차남 목사(온천제일교회), 문용권 목사(천안중부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송종완 목사(수원삼일교회), 박만규 목사(와~우리교회), 한원식 목사(천산교회), 박병석 목사(영양서부교회), 이규양 목사(수원제일교회), 문병호 교수(충신조직신학), 이형만 목사(삼호교회),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배광식 목사(대암교회),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등이 나섰다.

2012 장애인과 비장애인 “똑같이, 다함께”

여수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개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여수에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여수 예술마루와 여수일원에서 “2012 여수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국내 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내외 총 4개국의 예술장애인들이 화합하여 펼쳐지며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광열)와 사)한국DPI가 주최하고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다.

4개국의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만큼 이번 개막축하공연은 다채롭고 풍성하다. 개막축하공연인 Team Festival 및 개막식이 7월 31일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국내의 장애인 예술인들은 서로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르지만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나눔챗버안상을 연주,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밤별 연주, 이영화 춤터무용단의 한국전통무용, 드림보이즈의 현대무용, Tim KDFK의 유수공연, 부전장애인합창단, 성악가 임승종교수등 장애인 예술인들이 다양한 재능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들과 수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펼치는 장애인 예술인들의 패기와 재능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은 물론, 자신감과 희망을 선사해줄 것이다.

장애 예술인들의 공연은 개막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8월1일 수요일에는 여수순교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서는 임승종교수님의 축복송을 비롯한 찬양곡과 He is the Lord등 한빛예술단의 브라스 앙상블의 화려한 연주실력으로 음악회에 참석한 여수일대의 교인과 장애인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축제’는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8월 2일 오후7시 개최된다. 미국, 몽골, 일본 등 각국의 장애인 예술인들과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글로벌 문화축제가 ‘축제’의 포인트다. 장애인극복의 기회와 해외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일반인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외국인 예술단의 공연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축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오르면 해외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몽골 국예단 공연, 오페라켄터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이 잇따라 공연하며 일본 쿠 에이카 예술단이 한국전통무용을 선보인다. 바다 건너 먼 이국으로 와 재능을 펼치는 외국 장애인 예술인들은 한국 장애인들에게 남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장애인과 외국 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이 주목되겠지만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문화 공연을 뽐내는 외국 장애인 예술인들의 모습은 도전 정신도 일깨워 줄 것이다.

국내장애인예술단도 외국 장애인 예술단 못지않은 실력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장애인예술단인 한빛예술단의 브라스 앙상블 12중주, 한순 미술사 조성진 매직쇼, 하늘방 두레패의 난타공연, 나눔챗버오케스트라공연, 최승원 테너의 공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국내 장애인 예술단은 일반인

도 해내기 힘든 공연을 능숙하게 선보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큰인기는 경탄이 예상된다.

부대행사로는 다문화소품 및 몽골장애인의 수공예품을 볼 수 있는 전시와 장애인미술품과 사진전, 염주팔 만들기 및 체험행사도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가 진행되는 3일간 예술마루 로비에서 전시된다.

본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의 즐거움도 더해지며 여수 일대(오동도, 항일암, 진남관 등)를 둘러보며 여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참여인원은 서울 및 경기권 및 인천, 강원, 부산 등 전국각지의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 약1,100여명과 일본, 몽골, 캘리포니아 등 외국인 100여명, 총 1,2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함께 한다.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통해 국내외 장애인 예술단간의 교류의 장을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을 누리는데 문화적 혜택과 영역이 점점 더 넓혀질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특별한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이 감소하는 통합의 장이 될 것이다.

피종진 목사 8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2(목)~ 4(토) 6(월)	구미 선산소망기도원(원장 이성순 목사) ☎(054)481-1941 오후 전국 목회자사모세미나, 주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장소: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 ☎(02)435-4062 여수 새에덴국제기도원 (원장 김항순 목사) ☎010-7269-0191
6(월)~9(목)	9(목) 세종 평화의 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10(금) 서울 개포소망교회(연인애 목사) ☎(02)573-7797 13(월)~15(수) 순천 갈매산기도원(원장 조복순 목사) ☎(061)741-8091 17(금) 오후 서울 한사랑교회(정병태목사) ☎011-347-3390 17(금)~18(토) 안양 갈매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제172차 해외성회(172nd Overseas Assembly)
20(월)~22(수)	일본(Japan) 동경 노숙자 세족선교행사(주최: 일본 노숙자선교회)
23(목)~25(토)	일본(Japan) 나라타 갈매산금식기도원(원장 김태실 목사) ☎ 070-8625-9118
25(토)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상길 목사) ☎(031)947-0091 주최: 한국기독교부흥단체총연합회(총재 고충진 목사, 대표회장 장철수 목사)
27(월)~31(금)	필리핀(Philippines) 보라카이 선교대회 및 세미나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31(금)~9.1(토)	군산 호림산기도원 (원장 김사라 목사) ☎070-4235-3528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8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맛있는 영광굴비가 있는 맛집!

법성포 영광굴비 정식입니다.

음식이보약인 **법성포 영광굴비**에서 맛있는 굴비요리 맛보러오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법성포 영광굴비의 음식은 최고의 맛으로 보답합니다.

친절과 서비스까지도 만점인 법성포 영광굴비에서 행복한 식사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성포 영광굴비가 맛있는 까닭은?

타지역의 소금물에 조기를 담갔다 말리는 방법에 비해 법성포 영광굴비는 1년 넘게 보관하여 간수가 완전히 빠진 천일염으로 조기를 쪄켜이 재는 독특한 염장법으로 맛과 영양이 살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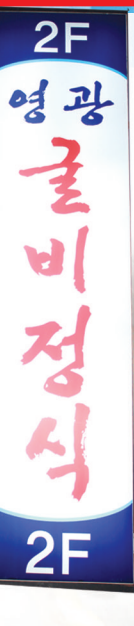
법성포 영광굴비정식 매장소개

넓은 내부로 단체 회식이나 모임에도 딱인 법성포 영광굴비 작심 테이블로 자리가 마련되어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실 때 최대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대한 손님들을 위한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법성포 영광굴비입니다.



영광굴비의 특징

여성 1위 암 - 유방암에 좋은 굴비 비트민B3 나이아신 함유되어 있는 조기! 뛰어난 항암효과로 조기를 굴비로 가공했을 때 더 늘여나게 됩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공급식품, 체중감량 식단에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원기 회복 단백질, 갑소, 철분은 원기 회복에 좋는데 '조기'라는 이름 자체가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발육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효과가 습니다.
요로 결석치료 전립선을 강화시켜 소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굴비는 요도의 결석 배출을 도와줍니다.



메뉴안내

굴비정식 / 굴비 특 정식
굴비 돌솥 정식
굴비매운탕



법성포 영광굴비 정식 경기도 하남시 충곡동 244번지 (고골사거리 2층)
매주 일요일 휴무 (AM 11:00~PM 9:00)
TEL: 031-795-6946